

제 135 호

교황 주일

성 바오로베드로 대축일

1975. 6. 29.

숲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498)

□강론□



교황 주일

김영구 신부

“너는 베드로라, 나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울것이 매 지옥문이 쳐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오 16 : 25, 18)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신 후 다시 베드로에게 세번이나 되풀이하여 “내 양을 치라” 분부하심으로써 이미 약속하신 교회의 최상 통치권을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최상 통치자인 로마의 교황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황께 대한 우리 가톨릭 신도들의 충성을 보여드리는 “교황주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며 증가시키기 위하여 당신 몸전체의 선익을 도모하는 여러가지 직책을 당신 교회안에 마련하셨습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부께로부터 파견되신 것처럼 당신도 사도들을 파견하시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으며,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이 세파까지 목자로서 교회안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베드로를 다른 사도들 위에 두시고 그 안에 신앙의 일치와 상호 교류의 볼 수 있는 원리와 기초를 마련하셨습니다. 교황의 성스러운 수위권의 설정, 영속성, 권한, 본질 등에 관한 교리와 그 교도권의 무위성에 관한 교리는 모든 신도들이 굳게 믿어야 할 것임을 교회는 주장하면서 베드로의 후계자이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온 교회의 볼 수 있는 으뜸인 교황과 더불어 살아가신 하느님의 집을 다스리는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에게 관한 교리를 모든 사람앞에서 고백하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이 가톨릭다운 특징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이 있다면 교황을 모시고 있다는 이 한가지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프로테스탄트의 뚜렷한 구별이 바로 가톨릭의 교황제도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교황을 그리스도의 지상대리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단 우리는 신앙과 윤리에 관한 교황의 선언은 성신의 감도로 그르칠 수 없는 것이라고 굳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는 이같은 진리의 보장이 인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신감도설을 주장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자신들의 삼분오열 현상을 체험하고 스스로 다시 교권의 확립을 계나름으로 만들어 보았지만 전 프로테스탄트의 복종을 요구할 만한 교권은 수립되지 못한 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에 교황제도를 바로 인식시켜 주고 지금까지의 오해와 고집을 풀어 주려는 노력이 더욱 중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황제도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면서 가톨릭 신도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교황께 대한 충성심을 들어내는 날입니다. 일년에 한번 자비로서의 선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 정성의 헌금을 많이 보내드리시기를...

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시여, 주께서 선정하신 교황 바오로를 인자로이 보호하시며 그리스도의 백성을 친히 다스리시어 우리가 이 위대한 교회 밑에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이 주일의 미사✽

가톨릭 기도서 P 493

(1) 개회식
 □입당송 그들은 육신을 지니고 사는 동안/자기들 피로 교회의 주초를 굳게 놓고/주님의 쓴 잔을 마셨기에/지금은 하느님의 빛이 되었다.

말씀의 전례

- 제1독서 (사도행전 12 : 1-11 성서 p 293)
주께서 나를 헤르데 손에서 구해내신 것을 알았도다.
- 찬가송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그 불례에 진을 친 당신의 천사가/그들을 구해냈도다.
내 언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내 입에 그 찬미가 항상 있으리라/내 영혼아 주님안에서 자랑해 보라/없는 이들 듣고서 기뻐들 하라. ◎
- 제2독서 (디모데오후서 4 : 6-8, 17-18 성서 p489)
정의의 월계관이 내게 준비되어 있다.
- 알렐루야 알렐루야 너는 베드로라/내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죽음의 힘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알렐루야.
- 복음 (마태오 16 : 13-19 성서 p 39)
너는 베드로이니, 내 네게 천국 열쇠를 맡기리라.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우리교황 바오로를 위하여 비오니/영육간에 온종 풍부히 주시고/주교와 사제들은/교황을 도와 일하며/모든 신도들은/존경과 사랑의 일치안에서/주님의 뜻이 땅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교황 바오로에게 지혜와 은총 주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아멘
2. 새로이 탄생하시는 일꾼분의 새신부님을 위하여 비오니/당신안에서/당신만을 위한/당신을 담은 사제가 되며/신부님들의 생활안에서/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새 신부님에게/지금의 이 풍부한 마음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은총주소서. ◎
3. 주여, 지금 피정을 하고 있는 신부님들을 위하여 비오니/신부님들에게 더욱 당신 성신의 빛을 밝게 비추어 주소서. ◎
4. 60주년 환갑을 맞이하는/전통성당의 발전을 위하여 비오니/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에 감사드리며/당신을 위하여는 그들의 뜻이 이루어져/당신 영광을 위하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 (3) 성찬의 전례 □불현 □성찬식 □영성체송 베드로는 예수께 이르었다. “당신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베드로이니 반석이다. 내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숲정이 산책



교황님 감사합니다

회갑에 무엇을 하는가?

이 영 희 (다두)

전통 성당이 하느님께 봉헌되어 축성된지 꼭 60주년입니다. 이즈 말기의 어려운 시기에, 더군다나 외국사람의 손으로 이땅에 성전을 세운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베리오 윤 신부님은 그 일을 해셨습니다.

사실, 그 일이 좋은 뜻으로 시작되었기에, 그리고 또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기꺼이 협조했기에 천주성신께서는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고마우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보답하기 위하여 조그마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일이란, 우리의 손으로 이 교장 전주에 또 하나의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우리 조상들이 피 땀 흘려 세우신 성전을 보다 아름답게 꾸미는 일입니다.

우선 1차로 우리들은 전통성당 건립을 위해 애쓰신 윤 사베리오 그 신부님과 그 뒤의 역대 신부님들이 누워 계시는 그분들의 묘소를 손질했습니다. 꾀스럼게도, 그간 못난 후손들의 불찰로 신부님들의 묘소는 많이 훼손되었었습니다. 이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던 차에 전통 방직 거 3회 회원들이 나서서 아쉬운 대로 묘소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청나라 기술자까지 동원되어 지은 성전이 많이 헐었고, 특히 불란서에서 들여온 모자이크 유리창이 6. 25전란을 통해서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도 갈아 끼우고, 성당안에 여러 종류의 나무도 새로이 심어 말끔히 단장했습니다.

또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축된 성전에 알맞게, 본당 청장년으로 구성된 성화회에서는 전자울거울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부인들로 조직된 성가정회에서는 제대에 새로이 양탄자도 깔았습니다. 성우회에서는 제대위에 새로운 전기시설을 했습니다. 자모회에서는 할머니들이 주머니를 털어 기념비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처녀는 강론대를 봉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새로운 성당을 짓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전통에서 중앙성당(전 대동성당)이 갈려나갔고, 다시 복자성당과 서학동 성당이, 그리고 노동동 성당이 갈려나갔습니다. 중앙성당에서 갈려나간 덕진 성당까지도 크지는 전통성당이 그 모체가 되고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명실공히 전통성당이야말로 전주 시내의 모체요, 전주교구의 어머니 교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주에는, 그 지역적인 여건으로 보아 새로운 성당이 필요합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중앙성당에서 이미 새로운 성당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마련했습

니다.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통에서는 전주의 남서쪽에 새로운 성당을 건립하기로 작정하여, 이미 교구의 어른들께서 1차 현지까지 둘러보셨습니다. 남은 일은 우선 땅을 장만하는 일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주교구의 모든 교우들에게, 특히 전통에서 성세를 받고 성체를 모셨던 교령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일은, 아주 조그마한 일이지만, 저희가 마련한 기념엽서를 즐거운 마음으로 애용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사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살림은 쫓기고 있습니다. 작 가정에서는 해야 할 일들도 많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작한 이 성전 건축사업은 언젠가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입니다. 본당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천주교 신자라면 누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이기여 여러차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회갑기념행사일을 순교 복자 김대건 신부님 축일로 정했습니다. 이날을 좀더 풍성히 하기 위하여, 주교님의 배려로, 새 신부님의 서품식도 전통성당에서 갖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이 와 주세요 그리고 축하해 주세요. 그간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통성당 건립 회갑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기획담당자>

◎ 행사 일정 ◎

- 6월 29일 <교황주일> 오후 2시 : 글짓기, 그리기 백일장
- 7월 4일 <금> 오후 8시 : 풍모자를 위한 전야미사와 성화 상영
- 7월 5일 <토> 오전 11시 : 서품식, 12시 축하식
오후 2시와 8시 기념공연(시민문화관)



녹음기 · 전축 · TV · 확성기
중고품 병장고 사고 삽니다

백운전파사

이 데메사 전화 ㉠ 0231
중앙시장통 시민약국 옆

*경운기 · 분무기 · 탈곡기
*트랙터 · 양수기 · 농기구 일절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승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전화 5116, 6114, 3547)

K.S사자표 페인트 대리점
반도카슈 대리점
표구제로, 각종한지
일크 슬입벽지 파이택스

대동 페인트 상사

전주시 풍남동 1가17번지
전화 ㉠ 5986
임정원(도민교)

□ 양지쪽 □

요십이 (101) 김병오 



쫄짜 신부 上京記

김 환 철 신부

전동성당 건립 이래 만 60년. 사람으로 따지자면 회갑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해이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회갑을 맞이했을 때 어찌 가만히 눈감아 그냥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인지사정이 그럴진 테 하느님의 궁전에서 60여년동안 음으로 양으로 주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온 교우들이야 어찌 이 뜻깊은 날을 그냥 맨손으로 넘겨 버린다서야. 따지고 보면 무관심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성당 사도회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때 이번 회갑기념 행사비로 50만원을 책정했고 지난 3월에 2차에 걸쳐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이 뜻깊은 행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굳게 결의한 바 추진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수차례 걸쳐 처음엔 성당구내 미화, 성당내부 제단, 전자울젠등 성당 울 안 정도의 기념사업으로 생각했으나 의견은 비약하여 주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기념성당, 적어도 데지만이라도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와 이에 대한 묘안책으로 기념엽서를 발행하자는 아이디어를 따라 무려 2만매를 발행하여 전국에 성당의 미모와 위용을 자랑하고 모든 신자들의 협조를 호소하였던 것. 이리하여 신자들은 들쭉 착을 지어 전주교구내 각 성당을 찾아 신자들의 협조를 호소하였던 것이다.

2만매를 매당 단돈 100원만 협조하여도 백이십만원이란 돈의 이익을 보게 된다. 어찌 교우들에게만 이 수고와 협조를-. 쫄짜신부는 교구 사무국장 신부님을 모시고 급기야 在京 전동성당 교우들을 찾아 나서기로했다.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세차게 달리면서도 마음구석엔 과연 호응도가 어떨지 맨손으로 구걸하는 느낌이 앞설때마다 "전대도 신도 지광이도 가져가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앞섰다.

사전에 연락을 한 바 티미날엔 재경 대표급 교우가 반겨 맞아 준다. 우선 거물급 교우들에게 다이얼을 바베 들렸다. "다방에 곧 나가겠습니다." "출장중..." "저녁에 시간을 내겠습니다."일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희망적이었다. 하루밤을 숙소에서 지새우고 다음날엔 재경 전동성당 부녀회원들이 10여명 몰려와 지난날의 회포를 늘어 놓느라 끝이 없다.

"신부님 모두 힘을 모으면 됩니다. 힘껏 노력해 봅시다. 어찌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것입니까? 염려마세요..." 한마디 한마디가 친사들의 음성으로 들렸다. 모두 기념엽서를 20-30매, 이웃 교우들을 찾아 가겠다는 것이다. 또 하루의 밤을 지새웠다. 어느교우가 자가용을 빌려 주었다. 이곳 저곳 교우들의 집 주소만 알면 원금을 불문하고 쓰다녔다.

2박 3일의 계획대로의 일과를 무사히 마치고 고속버스에 몸을 싣었다. 과연 성공이냐? 실패냐? 가늠하기 어려웠다. 이제 주님께 신뢰 할 뿐이다. 신학생때 라틴말로 외워 두었던 성경구절이 유난히 떠오른다. "Sine me nihie potest"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여! 잔치상이 허술할지 모르으나 최선을 다하여 마련코저 하오니 주여 자녀들의 이 정성을 어여삐 어여삐 여기소서 -아멘-

전동 주임신부



개점 1주년 확인판매
 삼성 T.V 대리점
삼성 전주 센타
 T.V, 냉장고, 전기용품 일절
박 영 옥(누시아)
 전주주공장입구 전화 ② 5893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찾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013
 김 원 준(야고버)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 지 사 진 관(2층)
 이 상 범(필노리아노)
 육교빌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② 6544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 울태(베드로)
 육교빌 중앙 시장동
 (전화 ②4577)

※집단장 청부. 문의 환영※
금강 페인트사
 <고급도로. 방수액. 흑판등>
 전화 ③0876 김 데레사
 소방서 북편. 결핵협회 옆

